

**차임 포 체인지가 선보이는:
사운드 오브 체인지 라이브 콘서트**

**구찌가 전개하는 세계 여성 및 여자 어린이의 권익 향상을 위한 글로벌 캠페인
'차임 포 체인지' 6월 1일 런던 트윅커넘 스테디움에서
공동 창설자이자 아트 디렉터 비욘세와 함께 하는 TV 생중계 콘서트 진행**

**엘리 굴딩(Elle Goulding), 플로렌스 + 더 머신(Florence + the Machine), 하임(HAIM),
이기 아질리아(Iggy Azalea), 존 레전드(John Legend), 라우라 파우지니(Laura Pausini),
리타 오라(Rita Ora), 팀버랜드(Timbaland) 외 다수 출연 예정**

3월 27일 오전 9시(GMT)부터 www.chimeforchange.org 통해 티켓 판매 시작

영국, 런던, 2013년 3월 26일 - 오늘, 셀마 하이엑 피노는 마리안 펄(Mariane Pearl), 존 레전드(John Legend), 샤미인 오베이드-치노이(Sharmeen Obaid-Chinoy)와 함께 소호 호텔에서 오는 6월 1일 토요일, 런던 트윅커넘 스테디움에서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사운드 오브 체인지 라이브 콘서트(*THE SOUND OF CHANGE LIVE*)의 개최에 대한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근 구찌가 세계 여성 및 여자 어린이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한 글로벌 캠페인, 차임 포 체인지(CHIME FOR CHANGE; 이하 CFC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본 공연은 비욘세를 주축으로 할 예정이다. CFC 캠페인은 구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프리다 지아니니(Frida Giannini), 비욘세 놀즈 카터(Beyoncé Knowles-Carter), 셀마 하이엑 피노(Salma Hayek Pinault)가 공동 창설하였고 조직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6월 1일 진행되는 사운드 오브 체인지 라이브 콘서트는 비욘세 놀즈 카터가 공연도 참여할 뿐 아니라 아트 디렉터로 총 지휘를 맡았으며, 엘리 굴딩(Elle Goulding), 플로렌스 + 더 머신(Florence + the Machine), 하임(HAIM), 이기 아질리아(Iggy Azalea), 존 레전드(John Legend), 라우라 파우지니(Laura Pausini), 리타 오라(Rita Ora), 팀버랜드(Timbaland) 외 추후 추가적으로 발표될 다수의 아티스트가 참여할 예정이다.

CFC 캠페인의 공동 창설자이자 아트 디렉터를 맡은 비욘세 놀즈 카터는 "여성들과 여자 어린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가능한 가장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라며, "전 세계

여성과 여자 어린이의 교육, 건강, 인권 문제의 중요성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6월 1일에 함께 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한다.

CFC 캠페인을 창립한 구찌는 콘서트의 재정적인 지원 또한 함께 하며, 모든 티켓 판매 금액(VAT 및 수수료 제외)은 전세계 여성과 여자 어린이의 교육, 건강,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변화를 촉구하고자 하는 본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이다. 구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자 CFC의 공동 창설자 프리다 지아니니는 “지금은 변화가 시급히 필요한 시점인 동시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의 시기다. 우리는 현대 여성과 여자 어린이의 권익 향상이 필요한 시점에 살고 있다. 바로 지금이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순간이다. CFC 캠페인이 그 동안 변화를 외치던 여성들의 목소리가 더 이상 무시 받지 않도록 큰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콘서트 티켓은 캠페인 웹사이트 www.chimeforchange.org 및 티켓마스터 (Ticketmaster: www.ticketmaster.co.uk or 44-0844-847-1693)를 통해 3월 27일 수요일 오전 9시(GMT)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콘서트 티켓의 구매자들은 이례적으로 티켓의 구매 금액을 본인들이 선택하는 비영리 활동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예정이다. CFC는 콘서트 티켓 구매자들이 여성과 여자 어린이를 위한 교육, 건강, 인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선택적으로 기부할 있도록 하는 세계 최초의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플랫폼 회사, 캐터펄트(Catapult)와의 파트너십과 함께 진행된다.

사운드 오브 체인지 라이브 콘서트는 Live Earth 와 Live Aid 의 제작을 맡은 바 있는 컨트롤 룸(Control Room)의 케빈 월(Kevin Wall)과 아론 그로스키(Aaron Grosky), 하비 골드스미스(Harvey Goldsmith)가 공동 제작을 맡았다.

또한 이 콘서트는 전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라이브 공연과 콜라보레이션에 이어, 여성과 여자 어린이들의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룬 영감을 주는 단편 영화와 스토리들을 선보이는 플랫폼으로써의 역할도 할 예정이다. 금일 기자 간담회에서도 선보인 단편 영화 역시 CFC 캠페인의 일환인 10개의 단편 영화 중 2번째 작품으로, 오스카 상에 빛나는 다큐멘터리 필름 제작자 샤미인 오베이드-치노이(Sharmeen Obaid-Chinoy)가 작업한 ‘후마이라(Humaira): 드림 캐처(The Dream Catcher)’라는 작품이다. 이 짧은 영화는 한 젊은 파키스탄 여성이 지역 사회 속에서 교육을 위해 투쟁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이 여성은 순수한 본인의 의지에 의해 학교를 설립, 현재 120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하루 단돈 1센트를 받고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샤미인 오베이드-치노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회 정의에 대한 신념을 가진 다큐멘터리 필름 제작자로서, 저는 관중들에게 감동과 희망의 미소를 전하는 필름을 만들고 싶었다. 자신의 지역 사회에서 살아가는 젊은 여성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자 투쟁한 후마이라 바샬의 인생 이야기는

단지 그녀가 적극적으로 앞서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사회의 남성들에 맞선 그녀의 현실적인 자세가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하기 때문에 더욱 감동적이다. 그녀가 전하는 메시지는 삶에 대한 위협과 함께 최전선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새로운 문을 열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널리 울려 퍼지리라 생각한다. “

CFC 캠페인의 매니징 에디터 역할을 맡은 마리안 펄 역시 이번 기자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마리안 펄 (Mariane Pearl) 편집장은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International Herald Tribune)과 톰슨 로이터 재단(Thomson Reuters Foundation)과 함께 언론 부문에서 이야기를 확산 시키는데 협력할 것이다. “CFC 캠페인의 스토리텔링 플랫폼뿐 아니라 특별한 용기를 가진 평범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한데 모아 풀어낼 재능 넘치는 저널리스트들을 이끌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라며 “이러한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은 세계 각지에 있는 여성들이 자신들을 위해,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일어서고 가지고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다 펼쳐 보이며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한다.

CFC 캠페인의 공동 창설자이자 케어링 재단의 이사인 셀마 헤이엑 피노는 “정보화 시대에 무고한 구경꾼이란 있을 수 없다.” 라며 “테크놀로지는 우리를 그 어느 때보다 결속시켜주고 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우리가 그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책임 모두를 가졌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지로 인해 정의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CFC 가 가진 비전이다.”라고 말한다.

전 세계 여성들과 여자 어린이들을 위한 변화를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 깊은 본 캠페인의 영향력을 넓히고자, CFC 는 케어링 재단(Kering Foundation),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 (The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페이스북(Facebook), 허스트 매거진(Hearst Magazines) 등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재단 및 기업, 개인과 제휴를 맺었다. 디지털 미디어 부문에서는 허핑턴 포스트 (The Huffington Post)와 협업할 예정이다.

CFC 캠페인은 하프사트 아비올라(Hafsat Abiola), 무나 아부술레이만 (Muna AbuSulayman), 지미 브릭스 (Jimmie Briggs), 고든 브라운과 사라 브라운 (Gordon and Sarah Brown) 부부, 리디아 카초 (Lydia Cacho), 데이비드 캐리(David Carey), 조안 크루스(Joanne Crewes), 와리스 디리(Waris Dirie), 야스민 하산(Yasmeen Hassan), 아리아나 허핑턴(Arianna Huffington), 무심비 카니오로(Musimbi Kanyoro), 존 레전드(John Legend), 팻 미셸 (Pat Mitchell), 앨리스 넬슨(Alyse Nelson), 샨민 오바이드 치노이(Sharmeen Obaid Chinoy), 프랑수아-앙리 피노(François-Henri Pinault), 제이다 핀켓 스미스(Jada PinkettSmith), 줄리아 로버츠 (Julia Roberts), 질 셰필드 (Jill Sheffield), 케릴 슈테른(Caryl Stern), 메릴 스트립 (Meryl Streep), 대 주교 데즈먼드

투투(Archbishop Desmond Tutu)와 그의 딸 미포 투투(Mpho Tutu) 등 각 계 각 층의 전문가 및 사회 운동가를 포함한 글로벌 리더들이 자문 위원으로 함께 한다.

지속적인 업데이트는 CFC 캠페인 공식 웹사이트(www.chimeforchange.org) 및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chimeforchange)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행사에 대한 이미지는 3 월 26 일 오후 1 시(GMT) 부터 다음 링크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http://mm.gettyimages.com/mm/nicePath/Italy?nav=pr185098328>

홍보영상 시청 및 CFC 캠페인 이미지를 포함한 미디어 자료는 CFC 캠페인 공식 웹사이트 (<http://www.chimeforchange.org/>) 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단편영화 후마이라(Humaira): 드림 캐처(The Dream Catcher)는 링크(www.youtube.com/chimeforchange) 를 통해 볼 수 있다.

라이브 콘서트에 대한 추가 영상자료는 다음 링크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https://mediaserver2.specialtreats.co.uk:443/cgi-bin/filemanager/>

아이디: GUCCI_SCREENING 2013

패스워드: gUcc15cR33n

사운드 오브 체인지 라이브 콘서트 참여 아티스트

새로운 콘서트 참여 아티스트 업데이트는 www.chimeforchange.org/soundofchange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운드 오브 체인지 라이브 콘서트에 대한 추가적인 매체 관련 자료 문의는 johanna.whitehead@freud.com 또는 sam.fane@freud.com 으로 하면 된다.

차임 포 체인지 조직위원회

프리다 지아니니(Frida Giannini), 비욘세 놀즈 카터(Beyoncé Knowles-Carter), 셀마 하이엑 피노(Salma Hayek Pinault)

GUCCI

1921 년 피렌체에서 탄생한 구찌는 세계적인 럭셔리 패션 브랜드이다. 최고급 품질과 이태리 장인정신으로 유명한 Gucci 는 가죽 제품들(핸드백, 가죽 소품 및 러기지), 슈즈, 의류 컬렉션, 실크, 시계 및 파인 주얼리 등 이태리의 모던 럭셔리 감각이 돋보이는 새롭고 다양한 제품 컬렉션을 선보임으로써 세계 럭셔리 패션을 이끌고 있다. 아이웨어 및 향수 이 두 분야의 비즈니스는 세계적인 유수 업체와 라이선스 형식으로 생산 및 유통되고 있다.

구찌는 제품의 품질, 창의성, 그리고 이탈리아 예술의 혼이 담긴 장인정신 외에도 사람, 환경,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을 사명으로 여긴다. 기업시민의식은 구찌의 미션과 운영 철학의 근본이라 할 수 있다.

구찌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 (www.gucci.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케어링 재단* (The Kering Foundation)

케어링 재단은 여성 폭력 근절과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9년 1월에 발족한 본 재단은 지역 사회 중심의 여성 관련 프로젝트들을 후원하고, 전 세계에서 발발하는 여성 관련 문제를 지지하기 위한 그룹 내 직원들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케어링 재단은 총 4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회 및 전 세계의 NGO, 사회적인 기업가들을 후원하고 있으며, 관련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일 뿐 아니라 케어링 소속 브랜드들과의 공동 프로젝트 또한 추진하고 있다. 2012년에는 전 세계 16개국에서 80,000명 이상의 여성이 케어링 재단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았다. PPR 그룹의 공식 명칭 변경과 더불어, 기존의 PPR 기업 여성 인권 재단 (PPR Corporate Foundation for Women's Dignity and Rights)의 공식 명칭 또한 2013년 6월 26일 진행되는 재단 이사회의 최종 승인과 함께 케어링 기업 재단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www.keringfoundation.org @KeringFoundation

페이스북 (Facebook)

2004년에 창시된 페이스북은 세계 모든 사람들을 연결시켜 소통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사람들은 가족 및 지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접하고 생각을 나누기 위해 페이스북을 이용한다.

캐터펄트(Catapult)

캐터펄트는 여성과 여자 어린이를 위해 세계 최초로 설립된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플랫폼 회사로, 관련 단체와 전세계에 있는 모바일 유저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단체 및 기업은 기금 모금 프로젝트를 온라인상 공개하고, 모금자는 자신이 후원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검색하여 온라인으로 바로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 전액은 단체들에게 그대로 전해지며, 모금자들은 프로젝트의 진행 현황에 대한 리포트를 받아 볼 수 있다. 캐터펄트는 2012년 10월 11일 협력사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 (The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세계여성기금(Global Fund for Women), 유엔 인구기금(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의 지지를 받으며 베타 버전을 출시했다. 자세한 정보는 캐터펄트 공식 웹사이트 (www.catapult.org) 에서 확인 가능하며, 캐터펄트의 트위터 (Twitter@wecatapult) 및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catapult.org)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캐터펄트는 비영리민간단체 '501c(3)'의 우먼 딜리버 (WOMEN DELIVER) 프로젝트이다.

허스트 매거진 (Hearst Magazines)

허스트 매거진은 허스트 코퍼레이션 미디어 그룹 소속으로, 8천 3백만 명에 이르는 독자(Fall 2012 MRI)와 20개의 타이틀을 가진 미국 최대의 출판사다(ABC 2012). 전 세계적으로 300부 이상의 에디션을 출판한 허스트 매거진은 디지털화 전략의 일환으로 디지털미디어를 확장시키고 있다. 현재 28개 이상의 공식 웹사이트 및 14개 모바일 사이트로, 코스모폴리탄(Cosmopolitan), 파퐁 메카닉스(Popular Mechanics), 엘르(ELLE), 엘르 데코(ELLE DÉCOR), 에스콰이어(Esquire), 굿 하우스키핑(Good Housekeeping), 마리 클레르(Marie Claire)와 세븐틴(Seventeen)를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온리 (digital-only)사이트로는 MSN과 파트너십을 맺은 식품관련 사이트 딜리시닷컴(Delish.com), 미스퀸스맥닷컴(MisQuinceMag.com), 리얼뷰티닷컴(RealBeauty.com) 등이 있다. 과 같은 디지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허스트 매거진은

150 개 이상의 앱과 디지털 에디션 잡지를 출판했으며, 글로벌 디지털 마케팅 대행사 아이크로싱(iCrossing)도 소유하고 있다.

후마이라(Humaira): 드림 캐처(The Dream Catcher) 시놉시스

파키스탄의 여성 중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26%밖에 되지 않는다. 많은 가족들은 이는 사회적, 종교적인 압박 때문에 딸을 교육시키지 않으며, 지난 6년 간의 이슬람 폭격으로 인해 600곳 이상의 학교들이 폭파되어 수천 명의 여성들은 집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 후마이라: 드림 캐처는 한 젊은 여성이 소속된 지역 사회 속에서 교육을 위해 투쟁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이 여성은 순수한 본인의 의지에 의해 학교를 설립, 현재 120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하루 단돈 1센트를 받고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